

<論 說>

피 타 고 라 스 의 수

김 주 봉

직각 3각형의 세 변을 각각 a, b, c 라고 할 때
방정식

$$a^2 + b^2 = c^2 \quad ①$$

은 유명한 “피타고라스의 정리”를 나타내고 있다.

지금 방정식 ①을 만족하는 a, b, c 의 정수값이 존재하고 있음은 $(3, 4, 5)$ 에서 $3^2 + 4^2 = 5^2$ 이 성립 하므로 쉽게 알 수 있다. 이와같은 방정식 ①의 정수해를 “피타고라스의 수”라고 하며 이런 수들을 찾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.

지금 ①의 정수해 (a, b, c) 가 정해졌다고 하면 (an, bn, cn) 도 $(an)^2 + (bn)^2 = (cn)^2$ 을 만족하므로 역시 ①의 정수해가 될 것이다. 예를들면 $(3, 4, 5)$ 의 각 수를 2 배한 $(6, 8, 10)$ 은 $6^2 + 8^2 = 10^2$ 이 성립하므로 이 수들도 방정식 ①의 정수해가 되며 $(3n, 4n, 5n)$ 으로 표시되는 모든 수는 “피타고라스의 수”가 되어, 이것을 구한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 아니므로 그 중에서 “기본해”를 구하려는 것이다. 여기서 “기본해”라 함은 $(3, 4, 5)$ 와 같이 (a, b, c) 세 수사이에 공약수를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.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(a, b, c) 가 방정식 ①의 기본해라고 하면,

i) (a, b, c) 의 어느 두 수도 서로 소이다.

왜냐하면 a 와 b 가 서로 소가 아니고 공약수 t 를 갖는다고 하면

$$a = ta_1, \quad b = tb_1$$

로 표시되며, 이것을 ①에 대입하면

$$(ta_1)^2 + (tb_1)^2 = c^2$$

$$\text{곧 } t^2(a_1^2 + b_1^2) = c^2.$$

이것은 c^2 은 t^2 으로 나누어짐을 말하며 c 는 t 를 약수로 가지므로 (a, b, c) 는 공약수 t 를 갖고 있으므로 기본해라는 가정에 어긋난다.

따라서 a 와 b 는 서로 소이다.

마찬가지로하여 b 와 c , c 와 a 도 서로 소임을 밝힐 수 있다.

위의 사실에서 (a, b, c) 의 어느 두 수가 동시에 짹수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된다. 그러므로 만일 있다고 하면 짹수는 하나에 한한다.

ii) (a, b, c) 중 홀수는 두 개인데 그 중 하나는 항상 c 이다.

왜냐하면 a 와 b 가 동시에 홀수라고 하면

$a = 2l+1, b = 2m+1$ 로 쓸 수 있고, 이것을 ①에 대입하면

$$c^2 = a^2 + b^2 = 4(l^2 + m^2 + l + m) + 2$$

가 되고 이것은 c 가 짹수가 될을 의미한다.

따라서 (a, b, c) 세 수는 동시에 홀수일 수는 없다.

그런데 a 와 b 가 홀수이고, c 가 짹수라고 하면 c^2 은 4의 배수가 되어야 하는데, 윗 식은 c^2 을 4로 나누면 2가 남는다는 것을 가르키고 있다. 이것은 모순이다.

따라서 c 는 짹수가 될 수 없다.

아로서 (a, b, c) 중 c 는 항상 홀수이며 a 와 b 의 어느 하나는 짹수가 되겠다.

지금 a, b 중 홀수를 a , 짹수를 b 로 정한다고 하면 앞의 $(3, 4, 5)$ 에서 $a=3, b=4, c=5$ 가 된다.

다음에 방정식 ①을

$$b^2 = c^2 - a^2 = (c+a)(c-a) \quad ②$$

와 같이 변형하면, $c+a$ 와 $c-a$ 는 두 홀수의 합파 차로서 어느 것이나 짹수이므로 $\frac{a+c}{2}, \frac{c-a}{2}$ 는 모두 정수이며 동시에 서로 소인 두 수가 된다.

왜냐하면 공약수 t 를 갖는다고 하면

$$\frac{a+c}{2} = tf, \quad \frac{c-a}{2} = tg$$

로 쓸 수 있으므로

$$\frac{c+a}{2} + \frac{c-a}{2} = c, \quad \frac{c+a}{2} - \frac{c-a}{2} = a$$

에서 $c=t(f+g)$, $a=t(f-g)$ 로서 a 와 c 는 공약수 t 를 갖게 되므로 a 와 c 가 서로 소이라는 가정에 모순된다. 따라서

$\frac{c+a}{2}$ 와 $\frac{c-a}{2}$ 는 서로 소이다.

지금 ②식의 양변을 4로 나누면

$$\left(\frac{b}{2}\right)^2 = \frac{c+a}{2} \cdot \frac{c-a}{2} \quad ③$$

이 되고 b , $c+a$, $c-a$ 는 모두 짝수이므로 ③식의 양변은 모두 정수가 된다. 이것은 $\left(\frac{b}{2}\right)^2$ 인 제

곱수가 서로 소인 두 인수 $\frac{c+a}{2}$, $\frac{c-a}{2}$ 의 곱으로 나타내어 짐을 의미한다. 그런데

$$\frac{b}{2} = p^\alpha \cdot q^\beta \cdot r^\gamma \dots$$

로 소인수분해 된다고 하면

$$\left(\frac{b}{2}\right)^2 = p^{2\alpha} \cdot q^{2\beta} \cdot r^{2\gamma} \dots = \frac{c+a}{2} \cdot \frac{c-a}{2}$$

이므로 $\left(\frac{b}{2}\right)^2$ 의 소인수는 $\frac{c+a}{2}$, $\frac{c-a}{2}$ 의 어느 쪽에든지 나누어 들어 있어야 하며, 또한 $\frac{c+a}{2}$ 와 $\frac{c-a}{2}$ 는 서로 소이므로 $p^{2\alpha}$ 은 $\frac{c+a}{2}$, $\frac{c-a}{2}$ 의 어느 한쪽에만 포함되어야 한다. 마찬가지로 $q^{2\beta}$, $r^{2\gamma}$, …도 모두 어느 한쪽에만 속하게 된다. 이로부터

$$\frac{c+a}{2} = m^2, \quad \frac{c-a}{2} = n^2 \quad ④$$

$$\left(\frac{b}{2}\right)^2 = m^2 n^2 \quad ⑤$$

로 바꾸어 쓸 수 있다. 이때 m^2 , n^2 은 서로 소이므로 m 과 n 도 역시 서로 소인 두 수이겠다.

$$\text{①에서 } b=2mn \quad ⑥$$

$$\begin{aligned} \text{④에서 } c &= m^2 + n^2 \\ a &= m^2 - n^2 \end{aligned} \quad ⑦$$

이 얻어지며 c 와 a 는 홀수이므로 m^2 과 n^2 중의 어느 하나는 짝수이고 다른 하나는 홀수이다.

따라서 m 과 n 도 그 하나는 짝수이고, 다른 하나는 홀수가 되겠다.

왜냐하면 m 과 n 이 동시에 짝수이거나 홀수라고 하면 m^2 과 n^2 의 합과 차는 동시에 짝수가 되기 때문이다. (이 후에는 하나가 홀수이고, 다른 하나가 짝수인 두 수를 “홀짝인 두 수”라고 부르자.)

위에서 방정식 ①의 기본해 (a, b, c) 는 서로 소이고 또 홀짝인 두 수 m, n 을 사용하여 ⑥과 ⑦의 형태로 쓸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.

예를 들면 $a=3$, $b=4$, $c=5$ 에서

$$m^2 = \frac{5+3}{2} = 4, \quad n^2 = \frac{5-3}{2} = 1$$

$$\therefore m=2, \quad n=1$$

$$\therefore b^2 = 4 = 2 \cdot 2 \cdot 1 = 2mn$$

으로 된다.

앞에서는 방정식 ①의 기본해 (a, b, c) 에서 출발하여 m 과 n 을 정하는 과정이었다. 다음엔 그 역으로 서로 소이며 홀짝인 두 수 m 과 n ($m > n$)에서 ⑥, ⑦에 의하여 세 수 (a, b, c) 를 만들었을 때, 이 세 수가 방정식 ①의 기본해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자. 곧

$$(m^2 - n^2)^2 + (2mn)^2 = (m^2 + n^2)^2$$

이 성립하므로 ①이 만족한다.

또 m, n 은 서로 홀짝인 두 수이므로 (a, b, c) 는 2를 공약수로 갖지 않는다. 뿐만 아니라 이들 수는 홀수인 공약수를 가질 수 없다. 왜냐하면 만일 홀수인 공약수를 갖는다고 하면 홀수인 소수(2를 제외한 소수)를 공약수로 갖게 되므로

$$c=pc_1, \quad a=pa_1 \text{ 으로}$$

$$\text{④에서 } 2m^2 = a+c = p(a_1+c_1)$$

$$2n^2 = c-a = p(c_1-a_1)$$

이 되어 $2m^2$ 과 $2n^2$ 은 p 를 약수로 갖게 되고, 또 $p \neq 2$ 이므로 m^2 과 n^2 은 p 로 나누어 진다. 이것이 m 과 n 이 서로 소라는 가정에 모순되므로 (a, b, c) 는 홀수인 공약수를 갖지 않는다.

따라서 (a, b, c) 는 방정식 ①의 기본해이다.

지금 ⑥, ⑦을 이용하여 몇 개의 “피타고라스의 수”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.

$$m=2, \quad n=1 \quad (3, 4, 5)$$

$$m=3, \quad n=2 \quad (5, 12, 13)$$

$$m=4, \quad n=1 \quad (15, 8, 17)$$

$$m=4, \quad n=3 \quad (7, 24, 25)$$

n	1			2			3			4			5			6		
m	b	a	c	b	a	c												
2	*	4	3	5														
3	6	8	10	*	12	5	13											
4	*	8	15	17	16	12	20	*	24	7	25							
5	10	24	26	*	20	21	29	30	16	34	*	40	9	41				
6	*	12	35	37	24	32	40	[36	27	45]	48	20	52	*	60	11	61	
7	14	48	50	*	28	45	53	42	40	58	*	56	33	65	70	24	74	*
8	*	16	63	65	32	60	68	*	48	55	73	64	48	80	*	80	39	89
9	18	80	82	*	36	77	85	54	72	90	*	72	65	97	90	56	106	[108
10	*	20	99	101	40	96	104	*	60	91	109	80	84	116	[100	75	125]	120
																		13, 28, 45, 64, 85, ..., 4n(n+1)+5

 $m=5, n=2 (21, 20, 29)$ $m=5, n=4 (9, 40, 41)$

.....

다음엔 m 과 n 의 복잡한 조건들을 붙이지 않고 $m > n$ 인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표를 만들면 위의 표와 같다.

위 표를 살펴보면 $(2mn, m^2-n^2, m^2+n^2)$ 에 의하여 수많은 피타고라스의 수를 얻을 수 있다. 특히 표에 *표를 한 것이 기본해임을 알 수 있고, 그 배열을 보면 무엇인가 일정한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며, []로 표시한 것처럼 기본해가 아닌것이 있다. 물론 이것은 3과 6과 같이 서로 소인 두 수가 아니므로 기본해가 아닌 것은 명백하다.

지금 이 표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본해를 구하는 식을 만들어 보자.

(1) 제 1 열에서 *표를 골라보면

$4, 8, 12, 16, 20, \dots, (4n)$

$3, 15, 35, 63, 99, \dots, (4n^2-1)$

$5, 17, 37, 65, 101, \dots, (4n^2+1)$

(2) 제 2 열에서

$12, 20, 28, 16, \dots, 4(2n+1)$

$5, 21, 45, 77, \dots, n(n+1)-3$

 $13, 29, 53, 85, \dots, 4n(n+1)+5$

(3) 각 열의 가장 위의 것에서

$4, 12, 24, 40, 60, \dots, 2n(n+1)$

$3, 5, 7, 9, 11, \dots, 2n+1$

$5, 13, 25, 41, 61, \dots, 2n(n+1)+1$

.....

$(4n, 4n^2-1, 4n^2+1),$

$(4(2n+1), 4n(n+1)-3, 4n(n+1)+5),$

$(2n(n+1), 2n+1, 2n(n+1)+1)$

.....

등과 같은 새로운 해의 공식을 유도해 낼 수 있다. (물론 제 3열, 제 5열, ... 에서 만들어진 것에는 기본해가 아닌 것도 어떤 규칙적으로 들어 있다). 그런데 이 공식들은 한 개의 수만을 대입하여 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, 모두가 어떤 일정한 조건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(예를 들면 (1)은 빗변과 흘수변파의 차가 2인 것, (2)는 빗변과 흘수변파의 차가 8인 것, (3)은 빗변과 짹수변파의 차가 1인 것 등) $(m^2-n^2, 2mn, m^2+n^2)$ 에 포함되어 있는 것 뿐이다.

이밖에도 이 표를 잘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들을 알게되며 앞에서 ①의 정수해를 구한 과정에서의 조건들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.

(덕수상업고등학교)